

## 「부산-후쿠오카포럼 제6회 후쿠오카 회의」 개최 -한일해협권신시대-부산·후쿠오카를 기축으로 한 장래성-

9월 2일(금), 3일(토) 양일간 동서대학교 일본 연구센터와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부산-후쿠오카포럼 제6회 후쿠오카 회의」가 후쿠오카시 호텔 닛코우후쿠오카에서 개최되었다. 「한일해협권신시대-부산·후쿠오카를 기축으로 한 장래성-」이란 주제로 열린 본년도 회의에서는 후쿠오카 측 대표 이시하라 스스무 JR큐슈회장, 부산 측 회장 김종렬 부산일보 사장을 비롯한 양도시의 산학계 리더들이 참가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2일(금) 회의에서는 큐슈 경제산업국의 타카모토 토오루 국장의 기조강연 「아시아 파워를 흡수, 성장하는 큐슈」에서 큐슈지역의 산학관 연계에 대해 정리한 「큐슈성장전략 행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큐슈의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분야로서 환경·에너지, 차세대 산업, 관광, 농업, 지역형 산업 등이 있고, 타카모토 국장은 「이런 분야의 성장에는 아시아 파워의 흡수가 불가결하며 동 지역의 아시아 발전의 핵이 되는 “큐슈 아시아 비즈니스 전략연구회”, “글로벌 인재협의회”의 구체적인 대안을 소개했다. 이것에 대해 카와사키 타카오 니시니혼신문사 사장은 “행동계획의 설명을 듣고, 큐슈의 성장전략은 아시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재인식했다”고 하였다. 또한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은 “부산항을 동북아시아의 허브항으로”라는 부산 측의 목표실현에도 후쿠오카 측의 협력이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등 부산-후쿠오카 양 지역의 연계강화에 기대하는 의견이 다른 멤버에게서도 잇달았다.

3일(토) 오전에는 「동일본대지진재해가 한일해협권에 미친 영향」이란 주제로 모리모토 히로시 재단법인 큐슈경제조사협회 이연오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의



보고와 토론이 실시되었다. 모리모토 이사장은 지진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은 큐슈지역의 자동차·관광·농수산업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산업구조가 비슷한 한일해협권 내에서 부품이나 소비재의 안정공급체제를 구축하고, 풍문피해봉쇄를 위한 연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연오 원장은 지진재해 후 한국의 동남권 동향으로, 일본기업에서 동지역기업으로의 부품·설비조달 상담증가나 소프트뱅크의 부산근교로의 데이터센터 설립발표 등을 보고했다. 그리고 “에너지·자동차·정보산업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방재물자 비축기지 조성 등 대형재해에 대한 협력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타카시마 소이치로 후쿠오카시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의 공동간담회를 통해, 이번 회의를 정리하며 「제6회 후쿠오카회의 의장총괄」이 발표되었다. 타카시마 시장주관의 오찬회 후, 본년도 3월에 전 노선이 개통한 큐슈신칸센 ‘사쿠라(さくら)’에 탑승하여 카고시마로 이동, 카고시마현 지사와 시장, 그리고 지역경제인과의 ‘카고시마 교류회’를 실시하였다. 교류회에서는 이토우 유이치로 카고시마현 지사가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동아시아의 교류’를 테마로 강연을 하였다. 이토우지사는 “큐슈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50%정도가 한국인으로 양 지역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며, “큐슈신칸센과 한국고속철도(KTX)의 전선개통은 카고시마에 큰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며, 이후 부산과 큐슈는 경제, 관광, 문화 등의 많은 분야에서 교류를 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 제 7회 포럼회의는 2012년 가을 부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제6회 후쿠오카회의 의장총괄

1. 부산-후쿠오카포럼은 동일본대지진 발생에 따르는 풍문피해방지에 노력한다는 방침에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많은 한국 국민의 일본관광 및 큐슈방문이 일본의 부흥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2. 2010년 11월 KTX 전 구간 개통, 그리고 2011년 3월 큐슈 신칸센 전 구간 개통으로 한국과 큐슈를 잇는 교통의 대동맥이 탄생한 것을 계기로 인적자원, 물질자원, 지적자원 흐름의 마디인 “부산-후쿠오카”를 게이트웨이로 한 큐슈 및 한국동남권에는 한일해협권 신시대가 도래하였다. 이 한일교통기반 구축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의료관광 등 새로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다.
3. 부산과 후쿠오카는 양 지역의 공동성장 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후쿠오카 측의 “큐슈성장전략”과 부산 측의 “초광역경제권구상”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정책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 또한,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구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제도적

문제점의 검토가 필요하고, 포럼에서는 양 지역 변호사협회가 초광역경제권의 장애가 되는 법적 제도적 문제를 조사 연구하여 2012년에 그 성과를 발표한다.

4. 글로벌인재와 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부산-후쿠오카 대학간 컨소시엄’이 확대 및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대학과 기업, NPO 등의 제휴를 촉진하기 위해 양 도시의 기업에 인턴ship의 고용을 촉진하고 글로벌인재육성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을 요망한다.
5. 부산-후쿠오카포럼은 동일본대지진 일본의 과학기술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여야 하며 정면 대응해야만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양 도시는) 차세대 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를 비롯하여 황사나 해상의 표류물 등 다양한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하여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 부산-후쿠오카 포럼 제6회 후쿠오카회의 기조강연 및 보고요지

## 기조강연 : 「아시아파워를 흡수, 성장하는 큐슈」

타키토모 토오루(큐슈경제산업국 국장)

작년 12월 큐슈지역의 경제단체·대학·금융기관 등 46기관이 「큐슈성장전략 행동계획」을 책정하였다. 동 계획은 환경·에너지, 차세대산업, 관광, 농업, 지역형 산업 등 큐슈의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분야로서 거론되었고, 이 분야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시아파워의 흡수가 불가결이다. 큐슈의 아시아전략 거점으로 설립한 「큐슈아시아비즈니스전략연구회」는 큐슈전체의 아시아정책과 비즈니스전략의 플랫폼 형성을 목표로 한다.

산학관의 지식인을 멤버로 하는 동 연구회는 아시아전략에 관한 주요과정을 의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활용해 나가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설립된 것이 큐슈경제연합회로 연합회 회장이 회장을 맡고, 산업계, 대학,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큐슈

글로벌 인재협의회」를 설립했다. 동 협의회에서는 산학관 간 그리고 해외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턴십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힘을 쏟고 있다. 다음으로 행동계획의 전략분야에 거론된 농업, 소셜비즈니스 분야에서의 대처법을 소개한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의 산업화에 대해 「큐슈농업·식품집단협의회(가칭)」를 설립한다. 동 협의회에서는 「ALL 큐슈」의 관점에서 구성조직간의 연계와 보완을 촉진하고, 지역특성의 프로젝트를 구현해해 간다. 한편, 소셜 비즈니스분야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의 부흥 지원을 계기로 지역 내의 민간자원봉사나 NPO 등과 연계를 한다. 또한 「GCL@큐슈대학」과도 협력하고, 교육, 연구, 정보발신 등의 면에서 소셜 비즈니스를 서포터 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큐슈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커뮤니티의 실증사업으로 기업, 연구단체 등 30개 이상의 기관이 참가하는 컨소시엄 「후쿠오카 스마트하우스」를 예로 소개한다. 자연에너지, 에너지, 제어시스템, 전기자동차, LED조명 등의 분야에서 참가기관이 자주적으로 가져온 제품들과 자율적인 연구 활동이, 이 스마트하우스 안에서 전개된다. 그곳에서 얻어진 성과는 컨소시엄 참가한 각 기관에서 공유하게 된다.

## 후쿠오카 측 보고 : 「동일본대지진이 한일해협권에 미친 영향」

모리모토 히로시(재단법인큐슈경제조사협회 이사)

동일본대지진이 큐슈의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생산, 관광, 농수산업으로 나누어 보고한다. 먼저 생산에 미친 영향에는 전체적으로 전국에 비해 큐슈에서의 생산 감소는 적으며, 큐슈지역의 철강공업생산지수는 이미 지진 전의 생산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업종별로 영향이 컸던 것은 자동차산업으로, 국내브랜드에서는 도요타자동차큐슈가 전년도 월 대비에서 3월에 60%감소, 4월에 70%감소되는 등 각 브랜드 또한 생산하는 차의 수가 급격히 줄었다. 한국브랜드도 부품의 17%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르노삼성자동차의 경우, 4월에 전년대비 20% 적게 생산을 하였다. 6월 이후 각 회사별로 생산이 급속히 회복되었으나, 자동차부품을 국내의 다른 브랜드에서 조달하는 기업 등이 눈에 띄었다.

한편, 피해지역 공장의 대체생산과 기업의 일부기능을 큐슈로 이동시킨 예도 볼 수 있다.

관광산업에서는 외국인 입국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한국인 관광객의 급락이 눈에 띄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은 큐슈지방은 일본의 타 지역과 비교해도 외국인 입국지수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풍문피해불식을 위한 관계기관의 방문이나 현지에서의 기자회견 등, 큐슈지나나 관료 등에 의한 틈새일조가 한국, 중국에 실시되어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농수산업분야에 미친 영향은 타 분야와 비교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큐슈에 미친 영향으로는 신선식품의 매입을 줄이거나 외식수요의 감소에 의한 출하량의 감소, 일본의 농작물의 수출수요의 저하 등이 거론된다. 이번 지진을 교훈삼아 산업구조가 닳아있는 한일해협권내에서 부품이나 소비재의 안정공급체제를 구축하고, 풍문피해방지를 위한 연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 부산 측 보고 : 「동일본대지진이후의 부산·후쿠오카 협력방안」

이언오(부산발전연구원 원장)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한국 전체에서 석유제품이나 철강제품 등의 대일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대일수입 증가율은 줄어들고 한국으로 오는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큰 영향을 받은 부산지역은 4월 대일수입이 전년도 월 대비 수산물 45.3%, 자동차부품 28.7% 감소,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수도 한국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상반기 여행객수와 화물량은 부산항에서 각각 29.4%, 17.1% 감소했고, 김해공항에서는 각각 8%, 9%감소했다. 그 외 영향으로는 일본인과 재일교포의 이주목적상의 부산방문과 문이 증가했고, 2011년도 상반기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건수는 전년도 대비 30%증가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기업은 생산기지의 이전, 공급경로의 재정부, 업계제

편, 사업구조의 전환 등을 통해,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했다. 한국에서는 원전폭발의 안전점검강화와 방재의식의 향상을 보였고, 일본에 대해 복구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한편,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산업면에서는 신재생에너지나 자동차부품이라는 분야에서 글로벌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강화라는 움직임도 보였다. 실제로 일본기업에서 부산, 한국동남권 기업의 부품·설비조달상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는 부산근교에 데이터센터의 설립을 공표했다. 부산과 후쿠오카를 중심으로한 한국의 동남권과 큐슈에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자동차부품의 조달기지를 조성하는 것, 아시아·클라우드·컴퓨팅·허브의 발전에 상호협력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새로운 분야로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있어서도 양 지역은 협력체제를 쌓아갈 것이다. 이러한 산업면에서의 협력을 더해 방재물자 비축기지의 조성 등 대형재해를 대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한일협력력을 리드하는 도시 간 협력의 성공모델을 목표해가야 할 것이다.

##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8회 국제학술대회」 동야대학교에서 개최 - 2012년도 대회는 히토츠바시대학에서 개최예정 -



8월 22일(월), 23일(화) 양일간 동야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한일차세대학술포럼 제8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동야대학교 사회과학대학과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한중일 54개 대학에서 약 250명의 대학원생과 인솔교수가 참가했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분과회, 기조강연, 리셉션, 조사여행 등이 실시되었다.

본 대회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로 세계 경제의 성장 센터로 발전한 동아시아 지역이 성숙사회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차세대연구자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길 바라는 기대가 담긴 주제이다.

개회식에서는 조규향 동야대학교 총장께서 환영사(대독: 박영수 동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를, 요넨 유키오 재부산일본국총영사께서 축사를 해주셨다. 이는 포럼에 참가한 차세대연구자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장제국 포럼대표는 개회식 중에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당초예정 되었던 6월 도쿄에서의 개최를

부득이하게 미루게 되었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양국 간 협력을 하여 개최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관계자 사이에 높아져, 이번 부산에서의 개최가 실현되었다. 이것은 포럼이 8년간 쌓아온 한일 간 신뢰관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본 대회개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셨다.

개회식 후 중앙일보상임고문이신 김영희 국제문제대기자가 「동아시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셨다.(강연요지를 다음페이지에 기재). 강연 후에는 차세대연구자들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제무대의 제선에서 활약을 해온 김영희 대기자로부터 저널리즘시점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다. 토론에 참가한 차세대연구자들에게 있어서 한일관계를 보다 종종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포럼의 메인 프로그램인 분과회에서는 국제관계, 정치·법률, 경제·경영, 역사, 언어·문학, 사회·젠더, 종교·사상, 민속·인류, 문화·예술 9개의 전문분야에서 64편의 다양한 연구발표가 있었다.(주요 연구발표의 요지를 본 뉴스레터 「차세대연구」페이지에 연재). 이번 대회의 우수논문은 대회이후 심사를 거쳐 2012년 3월 발간예정인 「차세대인문사회연구제8호」(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게재 될 예정이다.

본년도 대회에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에 위치한 도호쿠대학에서도 5명의 대학원생과 1명의 인솔교수가 참가했다. 도호쿠대학에서도 지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구관련 자료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흔쾌히 참가하였다. 그들은 “연구 환경도 갖추어져있지 않은 가운데 참가여부에 고민을 하였으나, 한일 차세대 연구자와의 교류가 큰 자극이 되어 새로운 연구의욕이 생겨났다. 피해지역 참가자에 대한 특별지원의 배려에 감사 한다”라는 감사의 표시도 받았다.

2012년도 제9회 대회는 지진의 영향으로 본년도 대회를 미뤄야했던 히토츠바시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2011 한중일 국제심포지엄」 북경대에서 개최



지난 4월 23일 동서대 일본연구센터·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북경대한반도연구중심·동북아시아사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1년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이 북경대에서 개최되었다. 「동북아시아지역협력의 기회와 도전」을 테마로 한 이번 회의에는 한중일 학자 및 연구원 32명이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제 1,2 세션에서는 북한의 핵개발문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을 둘러싸고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중공중앙당교 장렌웨이 교수는 “핵문제는 안보차원 외에도 핵오염 차원에서 중요시해야 하며,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연합을 통한 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도발이 잇따랐다고 지적,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라는 전쟁방지노력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 참가자들은 “중국이 보다 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야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동북아시아역사재단 정재정 이사장이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있을 후, 일본의 교과서 검정과정 등에 나타난 내성적 내셔널리즘이 오히려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장제국총장이 개회사를, 공로명 석좌교수가 축사를, 정구중·권세진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 김영희(金永熙)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 기조강연

##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조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와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일차세대학술포럼(대표 장제국 동서대 총장) 제8회 국제학술 대회가 8월 22일~23일 이틀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대회 첫날 22일(월)에는 신광철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김영희 중앙일보 상임고문/국제문제 대기자가 「동아시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저명학자들의 연구의 예를 들어 아시아가 세계역사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20세기에 시작된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Power shift가 21세기에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을 단순한 권력과 부(富)의 지리적인 이동으로 보는 반면, 아시아의 전문가들과 일부 서양학자들은 아시아가 1800년을 전후해서 유럽에게 빼앗겼던 역사무대에서 Key player 자리를 회복하는 세계사의 질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하버드대학 Kennedy 정책대학원 교수 Joseph Nye는 『The Future of Power』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권력이동의 하나가 아시아의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00년까지만 해도 아시아가 세계 인구와 경제력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ReOrient의 저자 Andre Gunder Frank는 1776년, 중국이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하다고 말한 Adam Smith가 아시아, 특히 중국의 선진경제와 서양의 상대적인 후진성을 제대로 평가한 최후의 서양 사회이론가로 평가했다. Smith는 국부론에서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하고, 농업생산성이 가장 높고, 근면하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했지만, 마지막에 덧붙인 “중국은 오래 정체

되어 있는 나라.”라고 서술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사상가로 국부론보다 76년 앞선 Charles Montesquieu의 『法の精神』에서 찾아볼 수 있다. 『法の精神』에서 “아시아에서는 강력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상대한다. 호전적이고, 용맹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나타내고, 나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과 바로 붙어있다.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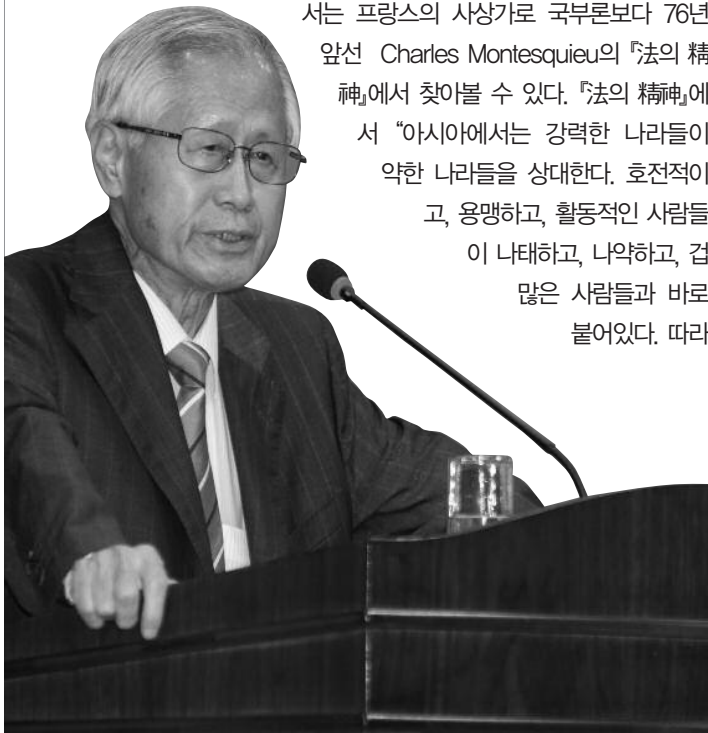
서 한 나라는 정복하고 다른 나라는 정복당한다. 반면, 유럽에서는 강국이 강국을 상대하고, 이웃한 나라들의 용맹성은 거의 비슷하다. 이것이 아시아는 약하고 유럽은 강하며, 유럽은 자유롭지만 아시아는 굴종을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이후 마르크스와 막스 베버 같은 위대한 사회이론가들로 이어지면서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들의 편견을 왜곡하게 되었다. 특히 마르크스는 아시아적인 생산양식/Asiatic Mode of Production=AMP라는 단순화되고 편견에 찬 공식을 만들어 내어 아시아 경제는 서양 자본주의가 진출하여 아시아인들을 긴 잠에서 깨울 때까지 후진적이고, 전통적이고 침체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동서양의 힘의 관계가 변화한 것은 1757년 이른바 플라시 전투가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서양 열강들의 제국주의가 아시아 진출로 연결되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영국을 비롯한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을 빈사상태로 만들어 놓은 곳에 뛰어들어 일종의 무임승차하면서 그 권력에 휩쓸려 1930년대에 중일전쟁, 1940년대에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처럼 파란만장한 가시밭길을 걸어 온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는 지난 30년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성취한 토대 위에서 이제는 아시아 르네상스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평화와 번영은 아시아 자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시아 나름의 세력균형이라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냉전 이후 세계 유일한 슈퍼파워의 지위를 누리던 미국은 현저한 국력의 소진현상을 보이고 있고, 동북아 질서가 중국의 부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비극적인 자연재해와 심각한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의 전망에는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동북아시아 최대 난제인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VS 중국 간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시대가 중국의 시대가 되고, 아시아 르네상스가 중국 르네상스가 된다면 한중간의 동등 입장의 균형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협력해야한다.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상대에 대한 지금의 편협한 인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이것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이니셔티브로 만들어지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구도에 중국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한일 두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정부 관료에게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구축과 수행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의 사고는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정치인들은 표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슈를 놓치려 하지 않으며, 역사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정도의 지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술대회 참여의 학생들이 중국의 젊은 세대와 활발하게 소통하여 자유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도록 도와야 한다.

포럼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치인, 관리, 기업인, 언론인, 학자가 되어 지금의 한일관계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이 아시아의 희망이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희망이다.





**최완(국제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kordow@empal.com

일반적으로 독도문제는 한일 양국 간 현안으로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 /1951.9.8.) 체결 당시를 돌아보면 두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조약 체결 전 한국으로 반환될 영토로 합의했던 독도는 수차례에 걸친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한일 양국 영토를 오가며 표기되다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독도문제를 악화시킨 요인은 근본적으로 연합국 중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미국이 추구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있다. 금번 포럼에서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동아시아 내 국제정치적 상황과 한일 간 외교격차로 나눠 접근했다. 첫째 역대 공산권 세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공전선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에 대한 지리적·정치적 정책을 우호적으로 재고했다. 둘째 일본이 시벌드(William J. Sebald) 등을 통해 초안 작성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반면, 한국은 미국이 요청한 독도자료조차 제대로 제공치 못했다. 특히 조약체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덜레스(John Foster Dulles)에게 독도와 파랑도(현재 이어도) 위치를 잘못 설명하는 등 외교적 실책이 이어졌다.

독도는 이처럼 국제정치적 상황과 외교 정책적 문제들과 결부돼 있다. 따라서 향후 미일관계, 연합국 내 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독도문제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최은미(정치·법률)**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수료  
dodo0401@korea.ac.kr

‘국가’와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20세기를 지나, 탈영토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는 ‘도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홍수 속에서 영토와 경계의 제약을 넘어서 문화권, 경제권 등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도시’는 새로운 관계를 담아내야 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욱이 21세기의 세계적 화두가 ‘성장지향적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으로 바뀌어 가면서 각 도시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자기혁신능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처럼 ‘창의성을 매개로 한 다양성, 순환성, 즉흥성, 독자성을 지닌 지역’을 ‘창조도시(creative city)’라고 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창조도시 조성의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창조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창조도시의 사례로서, 일본의 ‘가나자와현’과 중국 베이징의 ‘798예술구’를 중심으로 창조도시의 발전과 쇠퇴의 원인을 조사·분석해 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한 한국에의 적용과 시사점 및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창조도시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창조도시 조성 노력에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는데 진일보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루카와 히로야스(국제관계)**  
메이지대학 대학원  
경영학연구과 석사과정  
letters\_to\_you85@yahoo.co.jp

나는 지금까지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브랜드·이미지(GBI)전략에 대해 연구해왔다. GBI전략에 주목하는 이유는 1)일본의 시장이 포화상태인 가운데 해외진출이 기업성장의 대안인 것, 2)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일본기업의 다수가 제품의 고품질·고기능에 치중한 이미지전개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 것 두 가지 이유이다. 경제선진국에서의 소비자는 반드시 고품질·고기능에는 신경 쓰지 않고, 품질이나 기능이 다소 떨어져도 그들의 소득에 걸맞는 가격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몇몇 경제선진국에서는 고품질·고기능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며, 그이상의 가치를 소비자는 요구하고 있다.

이상으로 나는 다양한 GBI전략을 제시하고 그것에 종속되는 글로벌·마케팅전략의 선택지를 시사하면서 경제발전도나 문화가 다른 각국·각 지역에서 어떠한 GBI전략이 가장 유효하게 작용할지를 이론적으로 확실해졌다. 이 이론적 검토를 기반으로 박사과정에서는 각국·각 지역에 있어서 GBI전략의 유효성을 실증적인 연구법으로 구체적으로 해명하려고 한다. 국제적인 전략모형을 시사하는 것으로 본연구의 성과가 기업의 국제경쟁력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각 지역에 있어 새로운 소비자상의 발견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이토 유코(정치·법률)**  
도호쿠대학 대학원  
국제문화연구과 박사과정 후기  
yu-ko.s@s8.dion.ne.jp

올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막대한 재해폐기물이 발생하였다. 이번 재해폐기물은 해일에 의해 떠내려간 잔해물이며 염분과 오염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야기현 내의 각지 자체에서는 신속히 재해폐기물처리를 진행하는 한편, 폐기물처리를 하며 생기는 유해물질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이나 유용물질의 자원순환방법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폐기물정책은 도시 광산사업의 추진에서 보듯이 소형가전제품에 들어있는 희소 금속의 회수·재활용이라는 「고품질의 자원을 최대한 많이 모아 최신기술을 구사하여 재활용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번 지진으로 인해 「눈앞에 있는 폐기물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 한다」라는 폐기물처리의 원점으로 되돌아온 형태가 되고 말았다.

2011년 포럼에서는 폐기물정책의 관점에서 이번 재해폐기물처리에 지역행정이 어떻게 해결해 가야하는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지진재해 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재해폐기물의 광역처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가운데 국가·현·시정촌(市町村)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어떻게 하면 각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일본의 피해지 미야기현의 재해폐기물처리 현상과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고찰을 시도하였다. 앞으로도 피해가 컸던 연안지역 마을들의 재해폐기물처리상황을 조사하며, 이후 일본의 폐기물자원화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 프로세스의 방식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 동서사랑방 제14-16회 강연·토론회 개최



◆ 2011년 6월9일(목) 제 14회 동서사랑방은 한일 지식인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이오대 법학부 고바야시 요시아키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 및 토론회를 가졌다. 고바야시 교수는 「일본대지진과 혼미 속의 일본정치」를 테마로 칸 나오토 내각 불신임안 부결 이후의 민주당 정권의 향방 등 일본정국전망에 관해 강연했다.

이 날 동서사랑방에는 한나라당의 김태환 의원, 민주당의 이낙연 의원(한일의원연맹 간사장)등이 참석하여 일본정치 전망에 대해 들었으며 주

일한국대사로 임명된 신각수 외교통상부 차관도 참석, 부임인사를 했다.

◆ 2011년 7월 8일(금) 제 15회 동서사랑방에서는 한일양측 24명이 모인 가운데,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주필이 「동일본 대지진 복구 과정에 있어서의 일본정치·사회의 변화와 일본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 와카미야 주필은 이번 지진이 일본의 정치 경제적 기반과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크게 바꾸게 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상황과 복구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일본정치와 사회의 변화, 진로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 2011년 8월 9일(화)의 제 16회 동서사랑방에서는 한일 지식인 27명이 참석, 8월 중순에 이임하는 주한일본대사관 스즈키 히로시 공사·공보문화원장을 초청하여 한국재임중의 외교활동, 특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보고와 강연이 있었다.

## 14~16회 참석자 명단

가와카미 히로야스 (한국이토슈 사장)	도자와 히데노리 (도호쿠대학 법학과 교수)	박정호 (한일의원연맹 사무총장)	심규선(동아일보 편집국장)	이낙연(민주당 의원)
고바야시 나오토 (김&장 상임고문)	미에다 마사노부 (한국스미토모상사 이사)	박철희 (서울대 교수)	아오야마 슈지 (츠키이도신문 서울지국장)	이일규(한국三田會명예회장)
고바야시 요시아키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무라타 시이나 (주한일본대사관 서기관)	박형준(동아일보 기자)	아마사키 히로키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일본문화센터 소장보좌)	이토 료지(NHK서울지국장)
고야 유키코 (니시니혼신문 서울지국장)	문정인(연세대 교수)	배국인(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아마자키 카즈히데 (일본항공 한국지점장)	장재국(동서대 총장)
김덕길(가네다주식회사 회장)	미즈코시 히데아키 (주한일본대사관정치부장·공사)	사와다 가즈미 (마이니치신문 서울특파원)	오영환 (중앙일보 외교안보데스크)	정구중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운영위원장)	미치카미 히사시 (신임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서승원(고려대 교수)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주필)	초카모토 아츠시 (재)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소장보좌)
김혜린(KBS 국제협력실장)	미야마 토모미 (한국 아지노모토 (주)사장)	서영애(동아일보 편집국 부장)	요시다 타카시 (일본정부관광국 서울사무소장)	하시모토 키요아스 (주)동우화인켄 대표이사 부사장)
김혜영(KBS 국제방송팀장)	미야자마 히로시 (성균관대 교수)	스즈키 마사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부원장)	유주열 (한일협력위원회 사무총장)	하코다 테츠야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남시욱(세종대 석좌교수)	박전열(중앙대 교수)	스즈키 히로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공사)	이강민(한양대 교수)	현대송(국민대 연구교수)
다카스기 노부야 (김&장 상임고문)		신각수(주일한국대사)		

## 게이오대(시민사회거버넌스 교육연구센터)와 공동심포지엄 일본연구센터에서 「시민사회의 한일비교연구」주제로



7월 26일(화) 본 센터에서 「시민사회의 한일비교연구」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본 센터와 게이오대 시민사회거버넌스 교육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양 대학의 교수, 대학원생 및 학부생 약30명이 참가하였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본 센터의 정구중 소장이 한국의 정치변동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소장은 「한국은 민주화 이후 10년을 주기로 두차례의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는 지난 5년간의 정치를 지켜보고 새로운 정치변동의 선택을 단행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치열해지는 여야당간의 대립에 대해서 「국민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 빈부격차 등의 해소에 노력하는 정치세력을 원하고 있으며, 여야당에서도 국민적 기대에 따른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고바야시 요시아키 게이오대교수는 일본의 대의제민주주의의 「의제(議題)」에 대해 강연하였다. 고바야시 교수는 2009년 중의원선거를 분석하고 「일본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의 민의가 정치가에게 충분히 위탁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기존의 웨스트민스터 모델에는 한계가 있으며, 컨센서스 데모크라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책 엘리트뿐 아니라 시민도 단지 선거 때의 선택자의 측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논의의 참가를 통한 연파워먼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일양측의 기초강연 후에는 양 대학에 대학원생의 「민주주의 지표에 있어서의 프래그머틱 어프로치」, 「초국경 지역간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등 정치, 사회, 한일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8개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 후에는 참가자 전원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제7회 한일 6개 대학 공동세미나 개최 -「自立·自律」를 테마로-



9월 15일(목) 동서대학교 소양아트홀에서 한일 6개 대학 공동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올해도 일본 측의 게이오대학, 다이쇼대학, 야마구치현립대학과 한국 측의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약 250명이 참가했다.

이번 테마는 「自立·自律」로, 올해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한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장애자, 아르바이트, 대학생활, 교육, 젊음이 등 발표자가 선택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한 내용으로, 「自立·自律」의 의의에 착목하여 정리한 내용 등이 발표 되었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테마의 해석을 둘러싼 발언이 이어지고, 참가한 학생은 양국 간 다른 해석과 지금까지의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의 어프로치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어진 그룹 디스커션에서는 한일 학생이 4그룹으로 나뉘어 이번 테마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자신을 돌아보고, 테마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가를 이야기하고, 공통점 상이점을 확인, 발표·토론에서 언급이 되었던 구체적 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 되었다.

다이쇼대학의 유미야마 교수는 총평에서 “올해 공동세미나도 한일양국의 학생이 하나의 테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는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관점에서 테마를 접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대단히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 공동세미나를 계기로 대학생활이나 이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참가자들에게 전했다.

세미나 종료 후, 일본 측의 참가학생의 일부는 본 대학학생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한국의 가정생활을 체험했다. 이튿날 16일(금) 부산 시내 관광에서는 본 대학학생이 일본어로 안내, 부산시내 관광명소를 방문하며 우정을 다졌다.

## 제5회 동서대학교 일본어스피치콘테스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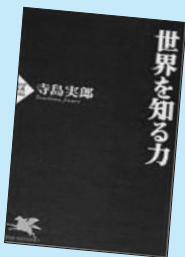


5월 16일(월) 「제5회 동서대학교 일본어스피치콘테스트」가 민석도서관 6층 다목적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고, 8명의 참가자가 열정이 담긴 스피치 발표를 하였다. 자신의 가족이야기,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친구의 소중한 등 자신과 관련된 소재가 중심이 되어 발표했다.

엄격한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모든 일에 노력을 한다면 보답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한 이주영(일본어학과 2학년)학생이 수상하였다. 그리고 우수상에는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한 김경률(일본어학과 2학년)학생이, 심사원특별상에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곳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은 권상진(영어학과 2학년)학생이 수상하였다. 수상한 3명 이외에도 수준 높은 스피치가 많았으며, 평소에 공부해온 성과가 크게 발휘되었다.

이번 스피치콘테스트에는 1학년이 3명이나 참가하였으며, 참관자 앞에서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펼쳐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또 본교에 유학중인 폴란드인 유학생 포라 사바루의 일본어스피치, 일본인 유학생인 오오츠카 카오루코의 한국어스피치도 있었고, 한국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한 동기와 유학생활을 하며 느낀 점 등이 발표되었다.

### 추천 도서



### 『세계를 아는 힘』

데라지마 지시로 저  
PHP 신서, 2010.3.

일본 종합연구소 회장 겸 다마대학 학장, 미초이물산전략연구소 회장인 저자는 일본의 대표적인 평론가이며, 하토야마 민주당정권의 '우애(友愛)외교'의 브레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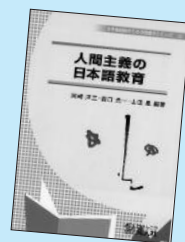
저자는 30여년간 조사, 연구 전문직을 맡아 왔으며, 국제문제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통하여 젊은 세대들을 계몽, 교육을 해 왔다.

세계의 흐름을 오랫동안 관측해 온 저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와중에 일본에서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민주당 정권이 탄생한 이래 일본은 어디로 갈 것이며, 특히 '분산형 네트워크 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진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일본 자민당의 패배의 의미, 미중관계의 항방, '우애' 개념의 현대성을 지적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하여 세상을 아는 힘을 키우기 위하여 세계의 흐름을 내려보는 '독수리 눈'과 지면(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벌레의 눈'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시점, 네트워크 속의 상관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날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 젊은이들이 읽어 보아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된다.

일본연구센터 연구원: 이성일(국제학부 교수)

### 일본어교사를 위한 지식책 시리즈③ 『인간주의의 일본어교육』



오카자키 유우조 · 니시구치 코이치  
아마모토 이즈미 편저 (凡人社, 2003)

21세기의 일본어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일본어교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서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인 일본사회는 다민족이 평화롭게 공생하는 다문화공생사회라고 하고, 이상적인 일본어교육의 본 모습을 「인간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언어능력의 향상만이 주목되었던 종래의 일본어교육을 비판하고, 학습자의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실천하자고 주장한다. 단, 본서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해 독자가 깨달길 바라며, 일본어교육계에 인간주의적인 변혁을 일으키려 선동하는 것이다. 글로벌적인 시야로 일본어교육을 사회와의 문맥 속에서 찾아, 일본어교육과 사회의 중개역으로써 역할을 인식하고, 변용하는 새로운 일본어교사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서 후반에서는 인간과 언어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지금까지 언어학(언어론)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논해져왔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연구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막연히 수업에서 실천하려던 것이 이 책으로 인해 정당화되고, 이론으로 뒷받침된 것 같아 기쁘다. 이후 일본어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거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추구하던 방식에 있어서 최적의 계발서가 될 것이다.

외국어학부 교수 : 후지와라 유코(일본어학과)

## 부산BB(Brain Busan)21 2년차 사업의 추진

부산광역시사가 주관하는 부산BB(Brain Busan)사업(인문사회분야, 연구중심)지원을 받아 본 연구센터와 본 대학원 일본지역연구과가 공동으로 “일본 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유산의 상징적 의미해석과 문화관광산업 자원으로서의 전환모델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 이원범)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을 방문하는 일본관광객을 위하여 우리지역 전통문화유산을 일본어 관광콘텐츠로 개발,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일본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있다.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로부터 매년 약 5,000만원(참여 학생들의 연구보조금)을 지원받아 3년 동안(2010년 5월~2012년 2월까지) 수행하게 되며,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2010년 1단계에서는 인재양성, 연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인재양성분야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대학원에 문화관련 과목을 신설했고, 연구 활동에서는 문화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견학형, 문화체험형, 생태체험형으로 나누어 현재의 상황을 검토했다. 이러한 자료조사는

2011년 2단계 연구 활동의 기초가 되었다.

2010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2단계인 2011년에는 ① 일본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한다. 일본지역 문화관광자원화 사례는 지역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자체의 ‘보유 문화유산의 발굴’과 그것들에 대한 ‘상징적 해석 및 의미부여’, 그리고 그 결과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전환’ 해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전국 47개 도도부현 문화관광 자원화의 과정과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지역 벤치마킹에 적합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부산지역 문화관광 수요 창출 및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우리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제작의 기초 작업은 우리지역 외국인 방문자의 만족도 향상과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단계의 중요한 연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2단계의 연구 활동은 3단계 연구목표인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서 문화관광 자원화 모델제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소장 동정 (4월~9월)

- 4/22~23 중국 북경대에서 열린 동서대 일본연구센터·북경대 한반도 연구중심·게이오대 현대한국연구센터 공동주최의 「2011 한중일 국제심포지엄」을 장제국 총장과 함께 주재
- 4/25 한일의원연맹 이상득 회장의 초청으로 장제국 총장과 함께 오찬간담. 전여옥 의원 및 박철희 서울대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과 한일현안간담
- 5/23 동서대 국제관계학부 「한류의 배경과 전망」특강
- 5/26 장제국 총장, 공로명 석좌교수와 함께 공동 초청인으로서 신각수 신임 주일한국대사 환송회 개최. 국회 전여옥, 김태환, 박상은 의원 및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 등 80여명 참석
- 5/30 오키노기 마사오 특임교수 초청강연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 7/26 동서대 일본연구센터와 게이오대학 시민사회 거버넌스 교육 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시민사회에 관한 한일비교 연구」심포지엄 개최 · 주제발표(부산 동서대)
- 8/24~26 장제국 총장, 공로명 석좌교수와 함께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9회 한일포럼 전체회의를 주재
- 8/30 장제국 총장과 함께 EU부르셀대사를 지낸 박준우 전 외교통상부 차관보(미국 스탠포드 초빙교수)환송회 개최
- 9/1 장제국 총장과 함께 일본 칸사이 경제동우회 방한단 초청으로 간담회 (삼청각)
- 9/6 콘도 세이이치(近藤誠一)일본문화청 장관 방한에 따른 만찬간담회 (주한일본대사 관저)
- 9/20~23 한중일문화교류포럼 위원장으로서 한중일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체회의를 경주 및 해인사에서 주재. 한중일 전통가면무 공연도 개최, 1천여명 관람
- 9/28~30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으로서 교토 리츠메이칸대학에서 제 3기 제3회 한일문화교류회의 전체회의를 일본 측 카와구치 키요후미 위원장(리츠메이칸대학 총장)과 공동주최, 심포지엄에서 기초강연

### 방문자 (4월~9월)

#### 일본연구센터 서울사무소

- 4/18 박형준 동아일보 기자
- 4/27 하코다 테츠야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 5/20 오명철 동아일보 문화담당전문기자
- 6/7 곽동렬 도쿄요한와세대학원 이사장
- 6/9 고바야시 요시아키 게이오대학 법학부 교수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 이낙연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 6/10 마에카와 케이지 프리저널리스트
- 7/14 와카미야 요시부미 아사히신문 주필
- 8/9 스즈키 히로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 일본연구센터 부산본부

- 5/16 미야하라 요코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전문조사원
- 6/2 시오즈카 히데미 니시니혼신문사 기자
- 7/4 가츠라지마 오부히로 리츠메이칸대학 문학부교수  
陳多友 광동외어외무대학 교수  
丁国旗 광동외어외무대학 교수
- 7/15 이케다 치에코 간사이국제대학 교육추진과
- 7/26 코바야시 요시아키 게이오대학 법학부교수

### 기증도서 (5월~9월)

- 5/24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동북아시아과 『2011 일본개황』, 외교통상부, 2011년
- 6/27 외교통상부 『한중일협력개황』, 외교통상부, 2011년
- 9/6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제5호, 그린비, 2011년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이규수 『일본제국회의관계법령집』, 손인, 2011년